

엇갈린

22/09/24 ver04

(로그라인)

과학 교과실에서 수상한 상자를 발견한 현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대한 기록이 담겨져있다.
그속엔 가장 친한 친구 은영이 멀리 떠나는듯한 암시도 적혀있는데...

(캐릭터)

주현지(여/18) : 은영을 따라한다.
이은영(여/18) : 자꾸만 따라하는 현지가 신경쓰인다.

S#1 계원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오전

화면을 짝 채운 현지(여,18세)의 얼굴. 현지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무언가를 주시한다.
은영(여,18세)은 현지 옆에서 손을 씻는 동시에 계속해서 떠들어댄다.

은영

아무도 몰라

다들 귀찮아서 그런거 확인도 안할걸? 너한테 별 관심도 없고

현지

...

은영

걱정마, 나 믿어 (말이 끝난 동시에 고개 든다)

은영이 고개를 든 순간 거울 속 현지와 눈이 마주친다. 씻고 있던 손을 멈추는 은영. 현지는 은영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급하게 시선을 피한다. 은영은 이내 화장실 칸에 들어간다.

현지

정말?

칸 속에서 휴지를 꺼내와 손의 물기를 닦으며 하던 말을 잇는 은영.

은영

이제 거의 한달밖에 안남았잖아
여태까지 안들키기도 했고

휴지는 옆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립밤을 꺼내 바른다.
은영이 립밤을 바르자 자신도 모르게 아랫입술을 깨무는 현지.

현지

(건성투로) 응..

현지는 반듯이 묶인 은영의 포니테일을 보며 약간 헝클어진 자신의 머리칼을 다시 묶는다.
은영은 현지가 머리 묶는것을 흘깃 보고 앞장선다.

은영
(현지가 머리 묶고 있지만 아랑곳 않고) 가자.

머리를 다시 후다닥 묶고 은영을 뒤따르는 현지.

S#2 계원고등학교 복도, 오전

화장실에서 나온 둘. 은영이 앞장서서 걸어간다. 은영의 뒤를 쫓아가는듯 걷는 현지.
반듯이 묶인 은영의 포니테일을 본다. 그리곤 방금 전 묶은 자신의 머리칼도 만지는 현지.
이내 현지가 은영의 발걸음에 맞춰, 교실을 향해 나란히 걷는다.
은영은 현지가 방금 막 대충 묶어버린 포니테일을 본다.

은영
(다시 정면을 바라보며) 넌 그게 문제야.

현지
..뭘?

은영
그냥 넘어가면 되는일도
이렇게 꼭 한 번씩 짚고 가서
(핸드크림을 꺼내 바르며) 괜히 신경쓰이게 만들잖아

현지는 대답 대신 은영의 핸드크림을 흘깃 본다. 슬쩍 웃는 현지. 현지의 피식에 은영은 현지를 쳐다보며,

은영
왜 웃어?

현지는 슬쩍 웃다가 은영의 날카로운 말투에 풀이 죽은듯한 표정으로 변한다.

현지
아..아니 신경쓰인다는게...

은영은 현지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린다.

현지
맞다, 나 아까 쌤이 교무실 들리라 했는데

은영과 현지가 교실에 다다르자,

현지
먼저 들어가

은영
응

은영이 먼저 교실로 들어가고 현지는 교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교실 앞 중앙계단으로 향한다.

S#3 계원고등학교 3층 과학교과실, 오전

과학교과실 우측에 놓인 선반 속 교과서들을 세고 있는 현지. 한 손엔 A4 종이를 들고 있다. 선반의 문은 죄다 열려져있다. 현지가 있는 곳 바로 앞에 있는 책상엔 현지의 휴대폰이 올려져있다. 지잉. 지이잉. 계속해서 진동소리가 나지만 현지는 아랑곳 않고 숫자를 중얼거리며 교과서 권수를 센다. 답임선생님의 카톡이 표시된채 켜져있는 휴대폰.

(답임선생님)

1교시 전까지 교과실에 남는 교과서들 확인해주세요~/아 그리고 현지야 / 내일 학급회의 준비해줘요/ 수현이 연락되면 같이 하구

교과서를 세던 중 무릎을 굽히자, 가장 밑단에 놓여진 의문의 상자를 발견한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다시 울리고 그 소리에 움찔한 현지는 괜스레 교과실을 한 번 숙 둘러본다. 다시 상자에 시선을 돌려 코를 한 번 찡그린다.

S#4 계원고등학교 2-7반 교실, 오전

어수선한 교실 분위기. 엎드려서 자는애, 유튜브 보는 애, 친구들과 떠드는 애로 정신없다. 그 중 은영은 자신의 자리에서 대각선 앞 책상에 걸려진 책가방에서 시선을 못 떼고 있다. 완전히 젖혀져있어 가방 내부가 훤히 보이는 책가방. 은영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필통을 지그시 잡고는, 곧장 일어나 가방 내부가 훤히 보이는 책가방 쪽으로 간다.

책가방엔 은영과 똑같은 디자인의 색만 다른 필통이 들어있다. 이내 그 가방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하는 은영. 은영이 가방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하자 몇몇 친구들이 그런 은영을 바라만 볼 뿐, 다가와 말거는 이는 없다. 가방 앞주머니에서 아까 자신이 발랐던 똑같은 브랜드의 립밤을 발견한다. 피식 웃는 기가 찬 모습의 은영. 이번엔 말라비틀어진 지저분한 모양새의 자신과 같은 핸드크림도 발견한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다가, 손으로 그 핸드크림을 매만진다.

S#5 계원고등학교 3층 과학교과실, 오전

선반 문은 여전히 열려있고, 밑단에 놓여있던 상자가 이번엔 책상 위에 올려져있다. 상자의 옆면엔 '22.12.30 2-7㉸' 이 검은색 마커로 적혀있다.

답임선생님께 적은 반 아이들의 롤링페이퍼를 읽고 있는 현지. 노란색 종이로 되어있다.

과연 지금 이걸 읽을때에도 체육쌤과 사귀고 계실지...

/

선생님 50일 축하해요!!

/

누가 먼저 고백하신거예요?? 이 상자 열때라도 말해주기예요 쌤

담임선생님과 체육선생님의 앞날을 응원하는 장난스러운 글귀가 적혀있다.
피식 웃다가도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의 현지. 그러다 마지막 구절을 보고 멈칫한다.

‘22년 12월 28일, 7반이들 올림’

급하게 롤링페이퍼의 앞뒷면을 살피고 이내 휴대폰으로 오늘 날짜를 확인하는 현지. ‘22년 11월 14일’
현지는 담임쌤께 적은 롤링페이퍼를 다시 보고, 손가락을 접었다 피며 숫자를 세고는 교과서 목록을 체크했던
A4종이에 숫자 ‘7’ 을 적는다. 다시 상자를 뒤적거리는 현지, 이번엔 뺏뺏이 코팅된 종이를 꺼낸다.
반 아이들이 서로에게 적은 몇 줄 안되는 말들이 나열되어 있는 종이 속에서 자신의 이름부터 찾아보는 현지.
이름 밑에 딱 한 줄 적혀있는것을 보고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2학기동안 회장, 부회장으로서 고생 많았어.’

‘회장’ 을 되새기며 가우뚱하는 현지. 종이를 뒷면으로 돌려보니 코팅된 종이 속 가장 눈에 띄는
방대한 은영의 공간. 어림잡아봐도 10개는 넘어보인다.

‘우린 절대 널 잊지 않아’

은영의 이름 아래 적힌 의미심장한 내용의 글들.
현지는 활짝 열려진 선반 속 교과서들을 흘깃 보고, 시계를 확인하고는 약간의 뜬금 들인 후
상자를 통째로 책상 위에 부어버린다. 여지껏 앉아있다가, 상자를 부어버리는 동시에 일어서는 현지.

하얀 용돈봉투/2-7반 단체사진들/귀여운 디자인의 엽서카드들/뮤지컬 굿즈백지/ 캐릭터 키링인형/하얀 조화꽃/손
바닥만한 작은 상자/여러개의 편지들 이 책상에 널푸러진다.
현지는 손바닥만한작은 상자를 들고는 냄새가 나는지 상자 입구 가까이 코를 대 냄새를 맡는다.
향기로운 냄새가 의외인듯 상쾌한 표정과 함께 곧바로 상자 뚜껑을 연다. 물에 빠지기라도 한듯한 모양새의 핸드
크림이 들어있다. 그 위엔 자주색 빛의 작은 종이가 올려져있다.

‘은영아
나 고의는 아니였어
용서받을일도 이제 받을 수도 없다는거 알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22.12.27’

7을 특이하게 적은 자주색의 편지. 편지의 뒷면도 돌려보지만

‘이건 겨우 찾아냈어.’

만 적혀있을뿐 누가적었는지 따로 적혀있지 않다.
점점 굳어가는 현지의 표정. 상자 속 다른물건들을 훑는다. 그러다 상자 덮개 안쪽에 적힌 글을 발견한다.

‘23학년도 졸업생, 2학년 7반 학생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입니다
혹여나 이 상자의 보관이 더이상 어려울경우,
아래 적힌 연락처로 연락 한 번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현지) 010-5692-7527’

자신의 이름이 적힌것을 보고 움찔하는 현지. 현지는 덮개를 손에 든 채 멀뚱히 서있다가, 종이 치자, 뜨끔 놀라며 책상 위를 서둘러 치운다. 꺼내놓은 물건을 아무렇게나 다시 상자에 넣는 현지.상자 덮개를 닫기 전, 작은 상자 속 자주색 종지와 상자덮개 안쪽에 적힌 문구를 휴대폰으로 찍는다.

S#6 계원고등학교 2-7반 교실, 1교시 쉬는시간

과학교과실에서 찍었던 상자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현지.

(V.O)화학선생님
내일봐 수고했어~

종이 치고 화학선생님의 마무리인사가 현지의 귀를 스친다.
반을 나가는 친구들. 다시 소란스러워진 교실 속, 현지는 아까 나눴던 담임선생님과과의 대화 내용이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V.O)담임
글쎄, 상자 얘기는 처음인데.
아, 글구 좀전에 수현이한테 전화왔는데 전학상담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가 수현이 대신에 일단 회장을 맡아줘야할 거 같은데..

오른쪽 다리를 떠는 현지. 휴대폰에 찍힌 상자 사진에선 옆면부분에 ‘22.12.30 2-7㉸’ 라고 적힌것이 적나라히 드러나있다. 이를 못보고 지나치는 현지.

자신의 자리에서 휴대폰에 집중한 현지를 쳐다보고 있는 은영.
옆자리 지혜는 현지를 쳐다보고 있던 은영과 은영의 시선 끝에 있는 현지를 번갈아 보며

지혜
둘이 진짜 닮았다

은영은 지혜의 말소리에 깜짝 놀라며 날서 있던 눈빛에 힘을 뺀다.

은영
...누가?

지혜
너랑 현지

은영이 아무 반응 않는다.

지혜
근데 또 둘 다 똑같은것만 가지고 있어서 쌍둥이 같애

은영은 대답하지 않고 콧방귀 킨다.
지혜는 현지와 은영을 쳐다보다 자신의 책상에 다시 시선을 돌린다.
은영이 다시 현지에게 눈을 돌렸을땐, 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듯 말라비틀어진 핸드크림을 손바닥 위에 짜내고 있다.

S#7 계원고등학교 3층 과학교과실, 점심시간

교과실 책상 한가운데 앉아있는 현지의 뒷모습. 책상은 상자 속 물건들로 다시 어지럽혀져있다. 아랫입술을 깨물고 공책에 무언가 적고 있다. 식단표, 롤링페이퍼, 코팅된 종이 그리고 손바닥만한 상자를 힐끔힐끔 본다. 계속해서 헛웃음 치는 현지. 오른쪽 다리를 떨기 시작한다. 이내 쓰던 손을 멈추고 일어난사이, 바닥에 떨어져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은영과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다리 위에서 찍은듯하다. 사진을 확인한 현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표정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가장 우측 하단엔 '22.11.14' 이라고 적혀있다. 사진 속 현지는 무지개색의 목도리와 함께, 현지는 상자를 들고 있다. 책상 위에 올려져있는 상자와 같은 상자.

S#8 계원고등학교 1층 교무실, 오후 -cctv각도로 진짜 cctv느낌으로 찍기?

도둑처럼 교무실에 조심히 첫발을 내딛는 현지. 행동이 전보다 빨라졌다. 표정에도 장난끼 하나 없고 서늘하다. 다른 선생님들의 동태를 확인한 후, 재빠르게 교무실 문 바로 앞에 위치해있는 체육선생님 책상 위에 노란색 포스트잇 하나를 두고 간다. 어설픈 어른흉내를 낸 것 같은 글씨체로

‘오늘이 저희 7일인거 아세요? 5시 뒷골목에서 잠깐 배요
-성주’

S#9 계원고등학교 뒷골목, 오후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어 골목기에 누가 들어오는지 주위를 살피며 경계하는 현지. 사뭇 진지한 표정이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5시. 얼굴 반만 내놓은채 엿보고 있는 현지의 시야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현지가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오는 체육선생님이 보인다. 손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들려있다.

현지는 고개를 실외기 뒤로 숨긴다. 선생님은 현지가 숨어있는 곳 바로 앞에 멈춰선다. 곧바로 담임선생님의 인기척이 들린다. 고개를 살짝 내놓고 보니 담임쌤 손에는 핑크색 포스트잇이 들려있다. 실외기 소리에 가려져 언뜻 들리는 담임쌤과 체육쌤의 말소리.

체육쌤

너 이름까지 적고 이런걸 책상 위에다 떡하니 두고 가면 어떡해
가뜩이나 내 자리가 바로 문 앞이라..

담임쌤

에? 너야말로..

종이가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실외기 뒤에서 미간을 찌푸린채 집중한 듯한 표정의 현지.
이내 주머니 속 사진을 꺼내들고 한껏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아까 현지가 과학교과실에서 무언가 적고있던 공책의 내용이 보인다.
공책 옆에 있던 손바닥만한 작은 상자와 함께 자주색 종이상자도 보인다

S#10 한적한 다리 위, 오후

현지가 조금 앞서 천천히 걷는다. 현지의 뒤에서 자주색 종이를 읽고 있는 은영. 무지개색 목도리가 눈에 띈다. 다른 한 손엔 작은 상자가 들려져있다.

은영
(편지의 뒷면과 앞면을 번갈아보며) 너가 쓴거야?

현지는 앞서 걸어가다 은영의 말에 뒤를 돌아보며 약간 인상을 쓴다.
은영이 현지의 표정을 보고 어이없어하는듯 하자, 현지가 애써 인상을 핀다.

현지
그 상자에 있던거..라니까

은영
(현지의 말을 끊고) 이 글씨체 너꺼잖아.
내 글씨체랑 어설피게 비슷한거.

은영이 보란듯이 현지에게 편지를 건네자 현지가 편지를 슬쩍 본다.

은영
7을 그렇게 쓰는 사람은 너랑 나밖에 없어.

현지
(동공이 잠시 흔들리다) 그게 지금 중요한게..

은영
(현지의 말을 끊고) 거짓말을 해도 좀 성의있게 하던가,

은영은 현지를 위아래로 훑는다. 묘하게 자신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현지.
현지가 은영의 시선을 느꼈는지 시선이 점점 바닥을 향한다. 은영은 현지에게서 다시 종이를 빼앗고는,

은영
(중얼)하다하다 글씨체까지 따라하는건..

현지의 시선이 바닥에 있다가, 은영의 '따라하는건' 소리에 눈을 치켜뜨며 한껏 날선 목소리로

현지
야, 따라한다니!!
우연히 겹칠 수도 있는거지.. 오바는

은영은 갑자기 날선 현지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지만, 이내 성큼 현지의 등 뒤에 있던 가방을 뺏는다.
현지는 갑자기 가방을 가져가는바람에 아무런 저항없이 가방을 내주게 된다.

현지
야!!

현지가 되찾을새도 없이 은영이 가방을 탈탈 털어 가방 속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진다.
은영과 똑같은 필통과 립밤, 핸드크림 그리고 지갑이 보인다.

은영
우연이 참..

급하게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줍는 현지. 얼굴이 점점 붉게 달아오른다.
바닥에 떨어진 말라비틀어진 핸드크림을 보고 작은 한숨을 쉬는 은영.
현지를 등지고 난간에 기대어 상자속에 있는 새것의 핸드크림을 만지작 거린다.

은영
(한 번 작게 웃고) 그래, 지혜가 우리 닮았대..

현지는 가방에 물건을 도로 집어넣다가, 아까 처음 발견했던 폴라로이드 사진을 집어든다. 사진을 응시하는 현지.

은영
비슷한것도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쌍둥이라 하던데,

현지의 표정에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은영
(장난으로) 날 닮은거니까 칭찬이야, 그치?

은영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상자 속 새것의 핸드크림과 비교한다.

은영
생각해보니까, 선거한지 두달이 넘었는데
얘기안나오는거 보면 너 부회장 그거 절대 들킬 일 없어
내 이름하고 표 바꿨다는걸 나 아니면 또 누가 알겠어?

은영이 현지쪽으로 다시 등을 돌리며 말한다.

은영
(현지의 신발을 보고) 현지야 너 근데 신발 좀 빨아야겠다.
많이 더러워졌네.

현지의 시선이 들고있던사진에서 은영의 신발로 옮겨진다.

현지는 은영의 말에 거세게 그를 노려보기 시작한다.

들고 있던 사진을 주먹으로 꽉 지어 구겨지게 한 후, 별떡 일어난다. 현지의 발이 은영에게 점점 다가간다.

은영
우리 운동화나 새로 맞출...

그의 두손이 은영의 등에 가까워지고, 은영이 무언가 말하려고 현지가 은영의 등을 두손으로 힘껏 밀어버린다.

블랙화면.

은영을 밀어버리고 이제야 정신이 차려지는지, 맥 빠진 얼굴에서 놀란 표정으로 변한다. 뭐라도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손을 밀어 뺀다가 은영이 두르고 있던 무지개색 목도리만 가까스로 잡는다. 그 뒤 무언가 물에 빠져 침-병이는 소리가 들리고 현지는 한 손에 목도리를 꼭 쥐 채 다리 밑을 바라본다. 충격을 받은듯, 동공은 심하게 흔들리고 입은 떡 벌어진채 다물어지지 않는다.

물결의 파동이 얼마안가 잠잠해져 아무일도 없었다는듯 고요하다.
물 위엔 상자와 자주색 종이 그리고 흰색 운동화만 얇게 떠오를 뿐이다.
사이렌 소리가 점차 열게 들리기 시작한다.

S#11 계원고등학교 2-7반 교실, 오전

사이렌 소리가 점차 종소리로 변하기 시작한다.
(자막)
3주 후

롱패딩에 목도리까지 한 현지. 칠판에는 ‘각자 한개씩만 넣기’ 라고 적혀있다.
몇몇 친구들은 책상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고 몇명은 자신의 사물함을 비우고 있다.
그 속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는듯 볼펜을 잡은 손을 바빠 움직이는 현지의 뒷모습.

은영아
나 고의는 아니였어
용서받을일도 이제 받을 수도 없다는거 알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22.12.27

마지막으로 ‘22.12.27’ 날짜까지 적는 무표정의 현지.
뒷면에도

겨우 찾아냈어

라고 적는다. 책상 한쪽에 위치한 작은 상자.
현지가 그 상자를 열어 방금 다 쓴 자주색 종이를 넣는다.
상자가 열렸을때, 더럽혀진 핸드크림이 살짝 보인다.
교탁에 올려져있는 커다란 박스에 자신이 가져온 조그만한 상자를 넣는다.
(cut to)

사물함을 여는 현지. 사물함 안은 교과서와 담요, 칫솔컵 등 온갖 물건이 뒤섞여있다.
물건들을 도로 빼내니, 가장 구석에 작은 상자를 발견한다.
새것의 핸드크림과 포스트잇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

‘너 핸드크림 다 썼더라,
이 향도 써봐. 냄새 좋아’

은영이 두르고 있던 무지개색 목도리를 현지가 하고 있다.
그때, 주위에서 들리는 친구들의 목소리.

저거 은영이 목도리 아니야?

/

왜 재가 하고 있어?

/

또 따라 샀나보네,

/

근데 현지 재 부회장은 어떻게 된거야

주변 애들말에 포스트잇을 손으로 구기는 현지.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가 이내 다시 무덤덤해진다.

핸드크림 향을 한 번 맡아보고 손에 발라보더니,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린다. 사물함 속 짐들을 들고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는 현지. 현지의 신발은 마치 새신발인냥 새하얗다.